

# John Oswalt 박사, 열왕기, 세션 17,

## 2부 열왕기하 1-2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오늘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인 엘리야와 엘리사,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들 중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헤아릴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기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당신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도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길갈이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길갈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땅을 받을 때 지파들이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증거의 일부는 그들이 군사 습격에 나갔고 특정 도시 연합을 무너뜨린 다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갈은 요단 계곡 아래에 있습니다.

베델은 여기 중앙 능선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갈에서 뵤엘로 올라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거기서 잡으면 그들이 뵤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여호수아의 길갈이 아니라 여기 중앙 능선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위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역사적 길갈인 길갈이라면 그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께서 나에게 뵤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안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선지자 공동체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인이 오늘 죽을 줄 아느냐?” 그는 오늘 당신에게서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도 그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했을 때 그들의 관계에 다른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거기로 가야 해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래,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말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세 번이나 그들은 베델에 도착했고 그는 여기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야? 글썄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는 그의 주인에게 맡겨졌고 이제 그에게 넘겨질 이

사역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는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들의 두 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는 여기서 예언적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까라고 말할 것입니까? 나는 매달리고있다.

나는 계속하고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시험이었다면, 엘리사는 그것을 훌륭하게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지자 공동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다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는 선지자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족이 아닙니다.

아들(Sons)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거의 확실하게 선지자의 아들들은 아마도 젊은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속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그룹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기간에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안내서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내용은 불행히도 아합이 벤하닷의 생명을 살려준 열왕기상 20장 35절에만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왜냐고 묻습니다. 왜 이 이야기에만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성경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에 맞서 싸우는 이 외로운 전투에서 이 두 사람에게 지원군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지자의 아들들, 즉 이 선지자 공동체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 자신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탈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면 그 사람에게 지원 그룹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불에서 꺼낸 석탄은 매우 빨리 타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원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뒤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갑니다.

이제 길갈이 역사적인 길갈이라면 흥미롭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지파들이 믿음의 연합으로 모인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길갈에서 그들은 베엘로 갔습니다. 베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지금은 여호와의 금신상이 있는 곳이니라.

그들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땅을 받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그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나오는 대로, 그가 그의 겹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엘리야는 여러 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할 모세의 환생입니다. 지금, 나는 힌두교가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아마도 더 나은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모세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의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방문한 두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이세벨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엘리야에게 '좋아, 네가 실패했어, 네 후계자를 지명하고, 비켜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지리적 의미에서 볼 때, 이때가 바로 국가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계속되는 엘리사의 사역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왔고 이제 엘리야는 여기서 나가지 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혼자 사라지고 싶어요. 아니, 나를 너희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지금은 엘리사의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는 내가 정신적으로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엘리사가 두 배의 몫을 요구할 때, 그는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는 엘리야보다 두 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다른 아이들은 각자 한 몫씩 받았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두 몫, 즉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장자권인 에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재산의 두 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권세에 관하여 나를 당신의 장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에 있어서 당신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두 배로 상속받게 하소서. 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군요.

우리는 영의 능력을 원하거나, 영의 은사를 원하거나, 심지어 영의 열매를 원하지만 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위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구원의 품에 안겨주는 관계입니다. 성자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는 당신의 영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에게 가해진 영에 관해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 친구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영의 힘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열매를 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당신이 어려운 것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성령은 넘겨지거나 전달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결코 쉽게 관리되거나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영혼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영과 살아 있고 구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길 때에 당신이 나를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력, 당신의 비전이 영이 주는 영적인 비전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볼 수 있습니까? 오, 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라고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를 폐쇄했으며 모임 장소와 모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은,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이용하여 '오, 나는 당신의 영혼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여러분.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중도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주변에만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자리에만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삶의 중심에 있고 싶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우주의 실제 세력은 이스라엘 군대도, 시리아 군대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능력은 이 타락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망토는 남겨졌습니다. 그 겹옷, 수년 전에 엘리사의 어깨에 걸쳐졌던 그 겹옷, 그 겹옷. 엘리사는 주인을 잃은 슬픔에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이제 집어들 수 있는 새로운 망토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정말 멋진 이미지 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왜

번역되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 한알과 함께 섭취해야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사역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의 사역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겹옷을 남겨두고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겹옷을 버리고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겹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흥미롭게도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부분.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 이르되 나의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더라 당신은 어떤 영혼을 찾고 있나요? 권력을 찾지 마세요.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과일도 찾지 마세요. 그를 찾아보세요.

그를 당신의 목표로 삼고, 당신의 소망으로 삼고, 그가 당신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 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내렸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